

신앙의 전수인가? 단절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자. 과연 부모나 선배들의 신앙이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아니면 단절되고 있는가? 먼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신앙이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된 실례를 살펴보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이었던 사사시대를 보라. 그들이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한 것은 부모들과 선배들의 바른 신앙이 전수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사사기 2:7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동지들이 살았던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고, 그들이 다 죽자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어진 10절 말씀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정복에 자신들의 시간과 정력을 바친 것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게을리 한 것을 합리화하거나 핑계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게을리 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과 자녀 교육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씻지도 못하고 땀이 떨어지는데 언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셔야지요? 만약 그것도 안하시고 저보고 다 하라 하시면 저는 더 이상...’ 이런 자기 합리화와 핑계, 하나님께 대한 공갈 협박이 우리의 신앙을 자녀와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늘 전쟁을 하면서 고생을 하지만 너만은 내가 가져다 준 편안함을 누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알고 눈치 빠른 자녀들은 적당히 믿는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과 체험에만 도취되고 자랑할 뿐, 정작 자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하도록 돕는 일에는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당대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2세대들이 부딪치는 환경과 신앙의 싸움은 분명 달랐다. 구세대들은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여 땅을 차지하느냐가 주 관심사였다. 그러나 신세대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가나안 본토인들의 세속적인 문화와 생활과 종교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고 이길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와 흡사하다. 우리의 신앙 교육은 과거 일제시대와 6.25 전쟁 중에 고난의 신앙생활을 하였던 경험들과 멀리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한 일들을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들려준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였는데 너희는 너무 놀고먹는다’는 식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을 바라본다. 더군다나 이들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대차만 가중시킬 따름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과 후배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증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이고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와 선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